

대구 주보

부활 제6주일 2017. 5. 21.(가해) 제2052호

2017년 교구장 사목교서 | 그리스도의 젊은 사도, 청소년과 청년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http://www.daeguujubo.or.kr>

T. (053)250-3048~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요한 14,17) 스승의 빈자리는 얼마나 서운하고 혼란했을까요? 그러나 몸은 없어도 다른 보호자 성령인 진리의 영을 보내주셨음을 믿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야 합니다. _ 정미연 소화데레사 작

제1독서 사도 8,5-8,14-17

제2독서 1베드 3,15-18

복음 요한 14,15-21.

화답송 ◎ 온 세상이야,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또는 ◎ 알렐루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나 머무르고 싶다

권오관 특인 베드로 신부 | 선남본당 주임



“내 안에 너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의 유행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안에 너 있다.”라고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이 말은 연인들에게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이 말을 듣는다면 누구라도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당신의 크신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누시는 사랑의 일치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성삼위 안에 우리를 같은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늘 당신 마음에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분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분은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시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듯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내가 남몰래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알고 계시기에 거기에 따라 심판 받는 거 아니냐며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묵상해보면 하느님께서 그만큼 나를 잘 아시기에 나를 이해하시고, 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자비로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 비난하고 소외시킬 때는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

서 어설프게 알거나 잘 모르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기에 오히려 우리를 변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버려짐과 소외의 두려움 속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등지는 상황에서 주님의 이러한 사랑은 우리에게 큰 희망과 위로를 줍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오로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

도종환 시인은 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은 또 어디 있으랴.’ 길가에 피어나는 작은 꽃들도 다 흔들리며 비에 젖는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때로 갈등의 바람에, 유혹의 바람에, 욕심의 바람에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근심과 걱정, 비가 내리고 좌절과 고통의 비가 내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면 행복의 꽃이 필 것입니다. 사랑의 꽃이 필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 때, 빛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지금 자신의 몸에 성령의 불을 붙이십시오. 그분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권오관**

존중을 통한 관계성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1요한 1,3)

한국 천주교회는 가정의 달인 5월의 마지막 주일을 청소년 주일로 기념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주일을 포함하여 그 전(前) 주간을 교육 주간으로 정하여, 우리 모두가 청소년 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기를 촉구하며 또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야 할 교육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고 자살률은 가장 높습니다. 청소년기는 온전한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는 새로운 신체적·정신적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기에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회와 어른들의 관심은 청소년 개인의 인격보다는 진학과 진로에 맞춰져 있고, 결국 청소년들은 방향, 폭력, 중독, 자살 등과 같은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열린 마음으로 의지하고 서로를 도우며 공동선을 이뤄가는 ‘관계성’을 기초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청소년은 부모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지지와 격려를 받습니다. 또 학교에서 그들은 친구와 선생님의 관계를 맺으며 놀이와 배움을 통해 사회성을 체득합니다. 또한 그들은 더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가 존재하는 사회 안에서 문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시민성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가정교육이고 학교교육이며 사회교육입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관계 형성을 통해 보편적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요한 3,16) 이러한 하느님 사랑에로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하느님과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친밀한 사랑의 친교에 머물게 되고 나아가 이 친교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1요한 1,3 참조).

2017년 교육 주간을 맞이하면서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들 그리고 교육 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교육자, 학부모 모두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시는 하느님

서광호 베네딕도 수사 |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달라는 부르심은 저를 다시 성당으로 인도했습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나마 사는 보람이 있겠다 싶어서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참 다양한 신앙서적과 교리서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먼저 저부터 알아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치고 함께 웃고 어울리면서 처음으로 ‘행복’이란 단어를 체험했습니다. 게다가 교리서를 깊이 있게 읽고 보니 신앙의 진리가 과학적 지식체계보다 이 세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온전히 투신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때서야 미사를 집전하시는 신부님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고, ‘나도 저 신부님처럼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동료 교사들 몰래 예비신학생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교구 사제의 길을 포기하게 된 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겨났습니다. 성인 예비신학생 면접 때, 제 부모님의 이혼문제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큰 실망은 없었습니다만 부모님 문제로 제가 그 길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다소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때마침 나온 군대 입영영장을 들고 군 입대를 준비했습니다. 제대 후 다시 문을 두드려 볼 요량이었으나 제 성소의 앞날은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어렵고 힘든 군 생활이 저의 성소를 지켜줬습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긴장되고 지루한 시간들을 기도로 버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군 동료들이 제가 묵주알을 굴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기도란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천주교는 어떤 종교인지 알려 달라는 등의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많은 것을 물어보는 동료들 사이에서 중대 군중병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졌습니다. 때론 고참들에게 위선 떨지 말라는 모욕적인 언사도 들었습니다만, 부대 공소에서 매주일 미사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만큼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군 생활로 말미암아 한층 더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부르심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막 상병 계급장을 달았을 무렵, 하느님께서는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매달 부대로 전달되는 ‘생활성서’ 한 페이지에 수도원이 소개되어 있었는데,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이었습니다. 종교관련 잡지를 정리하는 휴식 시간 내내, 남자 수도원을 소개하고 있는 그 페이지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문득 예비신학생 면접 때, 교구보다 수도회 쪽 사제의 길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면접관 신부님의 권고가 생각났습니다. 잊고 있던 것이 기억났죠. 그리고 수도자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사 신부로서의 삶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구 사제보다 성직으로 봉사하는 수도자의 삶이 제게 더 맞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코헬렛이 말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코헬 3,1)라는 성구가 딱 들어맞는 듯합니다. 그저 규칙적으로 사는 게 수도생활 아닌가 싶어, 감히 기회를 얻고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군 생활 중, 금쪽같은 휴가를 쏙개어 수도원을 방문하였고 제대 후 6개월이 지난 2008년 1월, 봉헌 생활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고해성사

우리는 세례성사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고 또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서는 죄를 지은 우리가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기회를 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고해성사(告解聖事)’입니다.

죄의 용서와 친교의 회복을 전례적으로 표현하고 거행하는 ‘고해성사’는 성사를 받는 사람의 회개와 참회를 전제로 하기에 회개의 성사 또는 참회의 성사라고도 하고, 하느님께 죄를 용서받고 교회와 화해하기 때문에 화해의 성사라고도 합니다. 성사를 집전하는 사제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에 한때 이를 강조하여 고백성사라고도 불렀는데, 이 용어는 2000년 천주교 용어집이 나오면서 죄의 고백과 화해를 동시에 드러내는 ‘고해성사’라는 말로 바뀌어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목숨을 바치심으로써 우리가 하느님께 죄를 용서받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은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3)라고 하시며 고해성사를 제정하셨고 당신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셨

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해성사 때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곧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며 죄의 용서 또한 하느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해성사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살펴 알아내는 **성찰**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마음 아파하며 뉘우치는 **통회**,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는 **결심**, 사제에게 있는 그대로를 진실 되게 밝히는 죄의 **고백**, 그리고 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제가 정해주는 **보속**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줄 아는 것은
하느님의 은사, 선물,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2015년 3월 13일 프란치스코 교황 ‘자비의 회년’ 발표 강론 중)

교회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볼 것을 신자들에게 권고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예수 부활 대축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을 앞두고 의무적으로 고해성사를 받도록 하는 판공성사(判功聖事) 제도를 오랫동안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 주교회의에서는 사목지침(제90조 2항)을 수정하여 1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받았다면 판공성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면서 그 의무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정기적으로 자주 고해성사를 받아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한다면 날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총 속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

교구장 동정



- 5.14(일) _ 안강성당 50주년 및 건진성사 (10시 30분)
- 5.17(수) _ 프라도 서약 미사 (14시, 대신학원 경당)
- 5.20(토) _ 진목정 순교자 기념성당 봉헌미사 (11시)
교구 청소년 · 청년 사목 세미나 (14시, 대신학원 대강당)

보좌주교 동정



- 5.14(일) _ 만촌3동성당 건진성사 (10시 30분)
- 5.16(화) _ 제6회 교구장기 게이트볼 대회 (9시, 대구 성서 실내 게이트볼 구장)
- 5.18(목)~6.4(일) _ 미국 살렛 및 볼리비아 사목방문

교구 및 기관 행사

- 5.22(월) _ 시니어 평생대학 봉사자 성경교육(14시, 교육원 나동 대회의실)
- 5.25(목) _ 36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5주차(9시 30분, 포항 지곡성당)
- 5.27(토) _ 파티마의 성모님과 함께하는 성령 축제 미사(16시, 성김대건기념관)
파스카 188차 봄 탈출기 연수(5월 27일~28일 / 6월 3일~4일, 꾸르실료교육관)



파티마 성모 발현 100주년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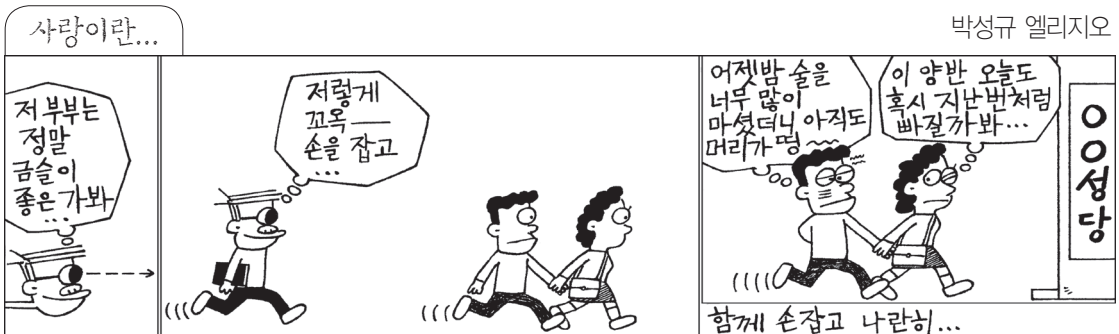
성모상 순회기도 대구 방문 (5월 26일~28일)

- 5.26(금) _ 성모당 11:00 / 미사집전 : 교구 사무처장 이종건 시메온 신부
- 5.27(토) _ 성김대건기념관(성령 축제) 16:00 / 미사집전 :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 5.28(일) _ 주교좌 계산성당 11:00 / 미사집전 : 조현권 스테파노 신부



답게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TV 시청을 줄이고 가족에게 ‘감사’와 ‘사랑’의 말을 전하며 대화시간을 많이 갖겠습니다.”



미 사 안 내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5월 22일(월) 11:00 도량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5월 23일(화) 14:00 신암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5월 22일(월) 11:00 계산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5월 23일(화) 19:30 다사성당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미사	5월 22일(월) 11:00 수성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5월 24일(수) 10:00 죽도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5월 24일(수) 10:00 평화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5월 24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구미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5월 24일(수) 19:00 현일고등학교	-	-

성소 | 피정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5.27(토) 16:00

장소: 예수회센터 이나시오카페

주제: 예수회의 역사

문의: 이인제 수사, (010)2874-9203

마리아 영성 피정(성체현사미사안수)

일시: 5.24(수) 13:00~16:30

6.21(수) 13:00~16:30

장소: 삼덕성당 / 지도: 강요셉 신부

문의: 422-6691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

기간: 6.9(금)~11(일) 2박 3일

장소: 베네딕도영성관(사수동)

주제: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나의 삶

대상: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 신자

문의: 한국CLC, (02)333-9898

향심기도 소개 피정

기간: 6.10~11 / 24~25 / 9~11

장소: 평화계곡피정의집(소울스테이)

대상: 향심기도를 배우고 싶은 분

향심기도 일일 피정: 6.25(일)

문의: (010)5332-7587

청년 성령 강림 전례 피정

기간: 6.3(토) 16:00~4(일) 18:00

장소: 토티포교베네딕도 대구수녀원

대상: 청년 누구나(미혼)

문의: (010)8519-3431

제주 성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기간: 6.3~5 / 6.8~10 / 6.13~16

6.19~21 / 7.1~3 / 7.19~22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교육 | 모집 | 기타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권민자 수녀)

3박 4일: 7.6(목)~9(일) / 7.23(일)~26(수)

8박 9일: 6.19(월)~27(화) / 7.11(화)~19(수)

40일: 6.30(금)~8.8(화)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신청: (010)4906-5722 / (031)953-6932

지역주민을 위한 관절염 순환교육(17_3차)

일시: 6.1(목) 14:00~15:3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T관 3층 데레사홀 / 문의: 650-4910

주제: 퇴행성 관절염의 최신치료

강사: 정형외과 최원기 교수

가톨릭신문사 크루즈 성지순례

기간: 9.2(토)~15(금) 13박 14일

장소: 이태리, 그리스, 발칸반도

(메주고리에) 등

경비: 내측 558만원, 발코니 588만원

문의: (02)780-0832 / www.cttour.org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발: 매월 1회, 4박 5일 / 63만원

지역: 가고시마, 나가사키

주관: 가고시마교구 / 지도: 송진욱 신부

문의: (010)3005-9028

29회 대구시청소년수련원 영어캠프

출발일: 6.24(토), 7.22(토), 7.29(토)

설명회: 5.20(2차) 14:00

국가: 캐나다, 필리핀

대상: 청소년, 대학생, 가족연수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Neome Skin Clinic 네오미피부과
원장/피부과 전문의 이준호 시메온
소아, 난치 피부질환 클리닉
명품레이저 보유
월성CGV 건너편 T.053)656-0075
NAVER 네오미피부과 검색

보건복지부 인증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말기암 통증 및 증상 조절
재능 및 기타봉사자 상시 모집
사랑나눔의원 원장 전 은 수(가브리엘)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 112-1 (동구시장 맞은편)
24시간 상담 · 입원 (053)217-9500

밝은귀보청기
세계 1-5위 보청기
김은연(세실리아) 최준우(미카엘)
053)421-8588 (섬유회관 맞은편)
NAVER 밝은귀보청기 검색

다비드제통외과
비수술적 척추, 관절, 신경, 인대 치료 전문
물리치료에 잘 낫지 않는 난치성 통증 전문
원장 권영득 (다윗)
Tel : 053)351-1704
칠곡 동아백화점 사거리
지하철 3호선 칠곡문암역에서 도보 10분

33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대구, 경북 어디서나 포장이사 전문
2484익스프레스
한익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구 313-2484

장보고원내과
원장! 내과전문! 조재현 (세례자요한)
위 · 대장내시경 / 건강검진
당뇨병 · 고혈압 및 내과질환
Tel. 053 791 7585
지하철 2호선 신매역 경산방향 5번 출구
신한은행 시지점 건물 3층 (달구벌대로 3218)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 · 대장내시경 · 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 · 고혈압
소화기 · 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성(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행사 | 모임

2017년 상반기 말씀잔치

일시: 6.17(토) 14:00~17:00
장소: 대구가톨릭대 의과대학 루가관
7층 대강당(대명동) / 신청비: 없음
대상: 성서모임별 학생, 본당참가 희망자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성령 축제

기간: 5.27(토) 9:00~18:00
장소: 성김대건기림관(남산동 대신학원)

2박 3일 성령세미나(신청비: 12만원)

기간: 6.9(금) 13:00~11(일) 17:00
신청: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바나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가난한 이와 고통받는 이들에게
발현하신 성모님
일시: 5.25(목) 13:00 기도, 14:00 미사
장소: 계산성당

첫 토요일 성모신심 소피정

일시: 6.3(토) 10:00
내용: 특강, 미사, 안수,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 신부
문의: 진량성당, 856-7676

5월 한티 피정

기간: 6.3(토) 16:00~4(일) 13:00
주제: 우리시대의 웰빙과 힐링
지도: 김정우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문의: 한티피정의집, (054)975-5151

가톨릭미용인회 빛모임

일시: 5.22(월) 20:00
장소: 교구청 가정사목국
대상: 가톨릭신자인 모든 미용인
문의: (010)6560-3086

교육 | 모집

제2차 대구약혼자 주말(혼인강좌 인정)

기간: 6.16(금) 19:00~18(일)
장소: 포교베네딕도수녀원 영성관
대상: 예비 커플, 2년 미만의 신혼부부
문의: 교구 청년국, 422-6692
신청: <http://www.dcy.co.kr>

37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개설(야간)

기간: 6.15~7.13(매주 목, 19:00~22:3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 10만원
대상: 가족을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
문의: 교구 가정사목담당, 250-3114
(010)6499-3114

오르간 성악 지휘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모래놀이 기초교육

일시: 5.27(토) 10:00~18:00
장소: 성토마스성당 교육관 2층 205호
문의: 652-6062 / (010)8802-6839

더 행복한 혼인생활을 위한 ME주말

351차 ME주말: 6.2(금) 19:00~4(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 특강

일시: 매주 금 10:00~11:15
장소: 계산성당 제1교리실
강사: 5월 윤원진(비안네) 신부
6월 마진우(요셉) 신부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월) 우쿨렐레, 성인생활영어회화,
(화) 바이올린, (목) 성가반주법
문의: 476-6211(지하철 1호선 교대역)

채용 | 안내

교구 법원 공시(253-9550)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경애(스콜라스티카)

대구가톨릭대병원 인공지능 왓슨 도입

지역최초 도입, 미래형 메디케어의 선두
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있습니다.
문의: 650-3436 / (010)6625-3119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7년 대상자 /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곡앤신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광동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못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팔리)
<http://www.ksnose.com>

고객 맞춤형 장례비용 설계
장례대행 / 장지분양 / 묘지이장 / 묘지조성
가톨릭 상조
월불입금 없는 후불제
24시간 상담문의 : 1577-3182
부장 서경철(파라펠) 010-7799-7836

성모지압안마센터
지압, 교정, 안마
어깨결림, 목, 허리, 골반교정
수험생, 직장인, 주부 환영
TEL. 053.631.2020
HP. 010.2814.5566
달서구 도원동 564 3층 (엘리베이터 有)

당뇨 고혈압!
합병증 예방이 우선입니다.
수업 내과
[인공신장실/건강검진실]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 전 현(라파엘)
상인역 ☎(053)642-7575

김&송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의 **김 덕 영** (스테파노)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U&I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 경 일 (아 네 스)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곡수(아네스) 010-5048-7739